

정흥식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 JP모간 - 미래에셋증권 보고서 정리

미래에셋증권은 JP모간이 19일자로 발간한 리포트의 영향을 받아 하한가까지 밀렸다. JP모간은 이번 리포트에서 미래에셋의 목표주가를 종전 17만 1,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대폭 낮추었다. 하향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증권 자금 유출)
- ② 정부 금융 대책의 미흡(불안심리 지속, 투자심리 및 거래 위축)
- ③ 미래에셋의 전망 악화 및 리스크 증폭

그러나 이 같은 이유보다는 JP모간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펀드런' 관련 문제를 건드렸다. JP모간은 "뮤추얼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대부분 코스피지수 1,700~2,000pt선에서 흘러 들어왔다며 대규모 환매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환매를 향한 억압된 요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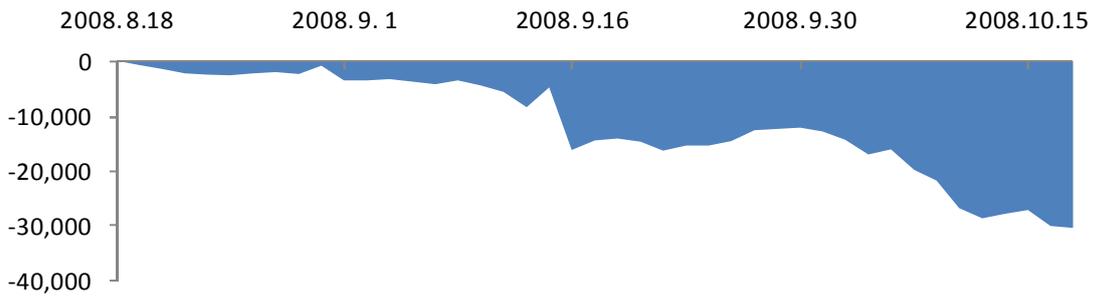
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이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단계" 라고 호평하며 정부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으나, JP모간은 "펀드에 신규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치 않은 조치"라고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골드만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책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 - 1,000억달러의 외화차입 지급보증은 은행권의 은행권 수요에 적절한 규모 - 300억달러 직접지원은 은행권의 유동성 고갈을 해소
JP모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책이 증권업에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 - 제한된 펀드세제혜택은 국내주식형펀드에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음 - 이 같은 조치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국내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이어질 뿐

□ 최근 주식형펀드 잔고 증감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국내 주식형펀드 잔고는 약 3조 563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부각된 9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식형 펀드 잔고는 약 141조원 수준이다.

최근 2개월 주식형 펀드 잔고 증감 (단위: 억원)



자료: 자산운용협회, 리딩투자증권 (기준: 2008년 8월 18일)

- * 상기 게재된 테마 및 종목, 업종 등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매수 추천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발간일 현재 상기 종목에 대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